



5 월의 낙스(NAKS) 소식

['스승의 날' 특별기획] 50 년 한국학교 교육의 어머니 허병렬 선생님

스승과의 수다



뉴욕한국학교 교장 박 종 권

(現 NAKS 이사/ 前 동북부협의회 회장)

한평생을 살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스승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먼발치 스승은 다가갈 시간을 주지 않고 훌쩍 떠나지 않는가. 그러고 보면 나는 엄청난 행운아인 셈이다. 요즘 나는 존경하는 스승과 거의 매일 만나 수다를 떨고 있기 때문이다.

95 세인 허병렬 선생님이 지난 2 월 급작스레 병원으로 이송됐다. 평생을 한국학교 발전에 헌신하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 맨해튼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터였다. 고령이신 데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한 시기에 당한 일이라,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은 삼엄했다. 팬데믹을 1 년 가까이 보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공포는 병원 가득했다. 이렇게 시작된 선생님의 투병 생활은 어느덧 석 달째를 맞이한다. 코로나 감염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가 계속됐지만, 선생님은 기적처럼 고비고비를 이겨내셨다. 옆에서 수발을 드는 나의 마음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은 “왜 이리 난리냐”며 나를 나무라신다. 쇠약할 때에는 기억력도 상실되는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주위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반전이랄까. 허 선생님의 병원(너싱홈) 생활이 나로선 싫지 않다.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 병원을 정한 까닭은 거의 매일 가서 선생님을 뵈 수 있어서이다. 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선생님의 옛이야기를 듣는 재미는 쏠쏠하다. 선생님도 병원 생활이 싫지 않은 내색이다. 맨해튼 아파트에서 아무 대화할 사람조차 없는 공간에 계신 것보다, 의료진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여러 지인의 병문안을 받을 수 있는 이곳이 낯지 않겠는가. 아내가 챙겨주는 한국음식 점심 한 끼는 덤이라 해도.

이렇게 스승과의 대화는 시작됐다. 이전엔 극구 사용을 마다하던 보청기도 이젠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신다. 워낙 청력이 떨어지신 까닭에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셨다. 보청기가 있으니 대화가 술술 이어졌다. 주된 내용은 늘 ‘학교 걱정’이지만, 가끔씩 선생님은 팔구십 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던 이야기를 토해내기도 한다.



김혜성 동북부협의회 회장(왼쪽)과 필자 박종권 교장
(2021년 4월 21일 허병렬 선생님 모습, 가운데)



허병렬 선생님(앞줄 가운데)과 뉴욕한국학교 교사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1926년생. 그러니까 한반도의 일제 식민지화가 굳어지던 시기에 태어나 식민지정책의 정수가 집결한 경성(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소녀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가 세운 경성사범 부속 국민학교의 언어는 조선어(한국어)가 아닌 일본어였고, 조선의 민족정신은 오간 데 없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만 했다. 선생님께 따르면, 당시 그 학교에는 훗날 매국노로 분류되는 고위직의 자녀들은 물론 조선 왕실 자녀들도 재학했다고 한다. 중고교(경기여고) 시절은 그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의 절정기.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에 부응해 소녀는 자랑스러운 ‘황국 신민’이 되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일본이 패망했다. 해방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 숙녀 허병렬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과 만난다. 이웃 사람들이 허병렬을 향해 “아니 왜 재는 아직도 제 나라로 안 갔대”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웬일인가. 같은 동네에서 수년간 인사를 나눈 이웃들이 자신을 일본인으로 알았던 말인가. 아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일본인인 척 시늉하고 거들먹거렸더라 말인가. 정말 그때의 수치심을 생각하면 70년이 지난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한다. 허 선생님과 20년 가까이 뉴욕한국학교에서 함께 했음에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막연히 70년 교직 생활 그중 50년이 넘는 세월을 미주 동포사회의 한국학교 발전에 헌신했던 선생님. 태어나면서부터 한글 지킴이, 평생 한국어 교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상실한 20 년
살아남기 위해,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한국어를 죽어라 배웠고,
정체성 교육의 절실함 깨달아...

해방당시 선생님은 한국어를 잘 몰랐다고 고백한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20 년을 살았노라고 토로한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한국어를 죽어라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 정체성 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았다고 한다(참조 **세바시 606 회: 허병렬-70 년 한글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9exTAimovRU>, **한국학교의 어머니-허병렬 선생님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6q7chwDBXDo&t=15s>).



1959 년 미국 유학을 온 것을 시작으로 1967 년부터 뉴욕에서 뉴욕한인교회와 퀸즈한인교회 등지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학교’의 꿈을 펼치기가 어려움을 깨닫고 독립학교를 설립한다. 1973 년 뉴욕한국학교가 그렇게 태어났다. 한국어는 물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즉 ‘한글학교’가 아닌 ‘한국학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체성 교육의 전형’을 만들어보자는 소망의 결실이었다. 그녀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80 년 겨울, 방학을 앞두고 동부지역의 여러 한국학교 대표와 교사들을 뉴욕한국학교로 초빙해, 수업을 참관케 하고 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회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모태**가 되었다. 이날 연수회를 마치고 맨해튼의 한식당 ‘인천집’에 모인 대표자들은 전국적 규모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이듬해인 **1981 년 마침내 ‘재미한인학교협의회(당시 이름)’를 출범**시킨다. 협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선생님은, 당시에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교재 편찬을 꿈꾸고 있었다. 현지 사정에 맞는 교재편찬의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82 년 교재편찬 워크숍이 개최되고 집필 위원들이 선정되는 등 교재편찬이 현실이 되었다. 교재는 83 년에 첫 발간되어 전국의 학교로 배포되었다. **낙스가 발간한 교재를 통해 미주지역 한국학교들은 비로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교육의 질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 교사 연수회 또한 뉴욕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뉴욕한국학교의 실제 수업을 참관하며 교수법을 익혔고,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 마침내 ‘뉴욕지역협의회(당시 이름)’를 두기로

뜻을 모으고 허병렬 선생님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다. 이후 낙스 총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낙스의 초석을 다져놓으셨다.

지난 2009 년, 36 년간의 뉴욕한국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고도 교실 수업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허병렬 선생님은 2017 년, 한국학교 근속 50 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은퇴하셨다.

내일도 나는 선생님과 행복한 수다를 위해 병원을 향할 터이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이 행복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으리라는 불안감이 묵직하다.

정체성 교육의 정수를 가르치신 분, 우리 코리안어메리칸의 얼을 심어주신 분, 이 큰 은혜를 그분 살아생전에 갚을 수는 있을런지.



허병렬 선생님(앞줄 가운데)과 문병 온 뉴욕한국학교 교사들, 김혜성 동북부협의회 회장(뒷줄 가운데), 박종권 뉴욕한국학교 교장(앞줄 맨 오른쪽)의 모습

우리 코리안어메리칸의 얼을 심어주신 분.

정체성 교육의 정수를 가르치신 분.

이 큰 은혜를 그분 살아생전에 갚을 수는 있을런지...

***허병렬 선생님 약력**

1926 년 1 월 17 일 서울 출생.

1945-1964 년 서울대 사범 부속초등학교 교사, 이화여대 사범 부속초등학교 교사

1967-1972 년 뉴욕한인교회 한글학교 교사

1973- 2009 뉴욕한국학교 초대교장 (36 년)

1988-1990 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1991-1994 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사장

1991-2002 년 「한인교육 연구」誌 편집인

2009- 2018 년 뉴욕한국학교 이사장, 한국어 교사

*저 서

1973 년 - 2003 년 낙스 한국어 교재 11 권 출판 (8 권 집필. 3 권 편집)

2013 년 수필집 「생각하는 나무」외 다수

*수 상

1984 년 뉴욕시(시장 Edward I. Koch) ‘우수 소수민족인’상

1989 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

2003 년 국제한민족재단 ‘자랑스러운 한민족상’(Berlin)

2017 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50 년 장기근속 표창 외 다수

#허병렬 선생님은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으셨지만, 무엇보다도 1973 년부터 발행해 온 <뉴욕한국학교 문집 전집>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국어 발전의 역사적 기록물로 가치있다’고 인정한 점을 제일 큰 상으로 꼽는다(필자 주).

*존경하는 우리 허병렬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편집자 주).

[연속기획 시리즈] 낙스(NAKS) 창립, 그 뒷이야기(2)

창립 40 주년, 1980~1981 년의 기억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이사장 서 문 원

창립 40 주년을 맞으면서 나는 **1987 년 8 월 29 일**을 잊을 수 없다. 3 대 회장이 되어 NAKS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가 볼티모어 바닷가에 새로 문을 연 Omni Hotel (Baltimore, MD – 지금의 Wyndham) 에서 이틀간 열렸을 때였다. 8 월 29 일 첫날 기초연설을 하기 위해 근교에 있는 뱌엘교회의 이상복 목사가 한국학교 학부모로 단에 올라왔다. 그는 왜 자기가 새로 지은 뱌엘교회에 한국학교를 만들었냐를 이야기하였다. 교회를 짓기 전 어느 날 시내에 있던 교회 사무실에 버스값을 얻으러 온 걸인이 있었다. 동양 사람 비슷해서 당신은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몇 대 할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도 하고 멕시코 사람이라고도 들었다”고 해서 차비를 준 후였다. “만약 내 딸이 언젠가 결혼해서 뒤에 태어난 후손이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지금 “새로 지으려는 교회에 한국학교 시설을 추가해서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어서 김 목사는 최근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한국에

보냈던 딸을 찾으러 비행장에 나갔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Welcome back home! I love to see you”라고 했더니 딸이 화를 벌끈 내며 서툰 한국말로 “아빠! 한국말 배우라고 나 한국에 보낸 거 아냐? 근데 왜 영어를 써?” 하는 딸을 보며 너무도 자랑스러웠고 감격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조 강연 하나로만도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람을 느꼈다.



곧이어 이날 단 위에 올라온 젊은 여학생은 춘원 이광수 씨의 손녀딸 이성희였다. 서툰 한국말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는 엉뚱한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는데 그는 심각한 얼굴로 “오늘이 ‘국치일’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국치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아는 모두를 부끄럽게 한 후에 그는 이어서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어떤 권사님 할머니가 “넌 니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소설가이셨던 거나 아니? 가르치지 않았는지 한국말도 잘 모르고 참 ... ” 하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였다. 자기 부모가 한국말과 글, 할아버지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이유가 있었음을 안 뒤 그는 이에 분발하여 한국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 하버드를 나온 후 지금은

콜럼비아 대학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에 밟고 있다는 이야기, 나중에 알았지만, 일본에 사신 까닭에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친미파로 몰릴 수 있지 않겠어요?”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내려갔었다. 이성희 씨는 나중에 한국학 교수가 되었고, 2005 년에 할아버지의 소설 “무정”을 영어로 번역해서 “Heartless”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51024/8240630/1> “춘원 손녀가 번역한 ‘무정’ 영문판 미국서 출판”).

NAKS 창립 후 40 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학교와 NAKS 에 매달려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의 답을 나는 위의 두 이야기를 통해 음미해본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이 “거룩한 사명(Holly Mission)”을 함께 감당하고 있으며 또 NAKS 가 처음에 생긴 이유, 그리고 40 년 동안 매년 학술대회와 교사 연수회를 거듭해 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2 세, 3 세들이 이 땅에서 바로 서게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 이제 40 년 생일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학교가 전 미국에 1,500 개 이상 생겼다는 사실에, 또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도처에서 한국을 빛내며 미국에 공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저 놀라고 감사할 뿐이다.

내가 기억하는 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 –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란 말이 이 시간 나의 가슴에 와 닿는다. 많은 ‘노병’들이 이미 타계하였다. 그러나 그분들의 업적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다. 또 어디에 계신지 사라져 간 분들이 많다. 나는 회장, 이사장직을 끝낸 후에도 기회만 생기면 이분들을 계속하여 만나 뵈었다.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에피소드만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싶다.

허병렬 –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본인의 삶을 거의 다 한국학교와 2 세 교육에 바친 분**은 허병렬 선생이시다. 나는 이 상징적인 분을 뉴욕에 갈 때마다 만나 점심을 같이하였다. 약 7, 8 년 전 여름이었다. 이번엔 좀 괜찮은 식당으로 나오시라고 했더니 “나 그런 데선 점심 못 먹어요! 우리 좀 싼 집으로 가요!” 하셔서 맨하탄에 있는 작은 일식집으로 갔다. 무슨 생각으로 나는 그날따라 그분이 놀랄 선물을 사기로 했다. 마침 Saks 5th Avenue 근처를 지나야 했기에 들어가서 샤넬 #5 한 병을 샀다. 점심 후에 드린 이 선물을 꺼안고 “세상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젊은’ 남성한테서 향수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 참, 이런 날도 오네요!” 하신다. 지금까지 나의 선물을 받고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게 어린 소녀처럼 좋아하는 모습은 그의 순수한 마음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라고나 할까. 나는 허 선생님을 여러 번 그린스보로, 랄리로 등지의 한국학교 강사로 모셨지만 그는 늘 강사료를 사양하고 항공료만 받았다. 최근 코로나로, 또 노환으로 입원하셨다가 요양 중이시라니 마음이 아프다.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기를 빌 뿐이다. **NAKS 의 한국어 I, II 를 집필하면서 함께 출판, 교정, 판매, 재고정리로 매주 애쓰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이분은 서울사대 부속 국민학교에서 나의 아내를 가르친 선생님이시기도 하다.

우리 2 세, 3 세들 이 땅에서

한국을 빛내며 미국에 공헌,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

지금도 “거룩한 사명(Holly Mission)” 함께 감당

박창해 – NAKS 가 창립될 때, 그리고 그 후 몇 해 동안 박창해 박사가 뉴욕에 계셨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예정된 축복이었다. 이런 원로 국어학자가 초창기에 왜 뉴욕에서 **NAKS 창립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는지는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다. 특히 이분과 허병렬 선생, 고려서적의 최응렬 사장과의 관계는 NAKS 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한국으로 다시 가신 후 1990 년 어느 날, 나는 박창해 교수를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식당가로 초대하였다. 점심시간에 밀려 나온 아줌마 부대와 섞여 앉아서 우리는 큰 소리로 NAKS 창립 당시를 회고하였다. 또 그가 “바둑이와 철수” 이야기가 겹장에 있는 초등학교 1 학년 교과서를 집필하던 일, 문교부 편수관으로 일하던 때 이야기,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만들어 성공했던 비화를 들은 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그러나 이게 박 교수를 만난 마지막이었다. 그는 2000 년 6 월 16 일 95 세로 타계하셨다.

강경식 – 강교수는 나와 함께 NAKS 와 KSEA(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찍 타계한 큰 별이다. 나는 “별은 떨어지지 않고 늘 떠 있다”고 말한다. 그가 한국학이나 한국어에 정통한 학자도 아니면서 2 세 한국어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동역자가 되었던 이유는 2 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나와 같았고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로서 초기 이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많은 한인 과학자들이 70 년대, 80 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한국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NAKS 의 지속적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겠다. 강 교수는 브라운대학 문리과 교수였으나 **NAKS 와 KSEA 의 헌장을 만들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어디서나 “원칙의 사나이”로 불려 왔던 그는 2006 년 5 월 어느 날 갑자기 67 세를 일기로 빨리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던지 나는 강 박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0 시간을 운전해 가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장례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그가 다니던 대학을 돌아보고 왔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의 사라진 ‘노병’으로 죽지 않고 NAKS 의 역사에 영원한 동역자로 살아 남아있다. 부인 함혜란 박사는 NAKS 부회장,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언어학, 불문학자로 지금도 계속하여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명예 교장으로 2 세 교육에 힘쓰고 계시다.

김석연 - 앞서 말한 대로 이분은 공대생이었던 나에게 한국 고전을 가르쳤던 교양과목 교수였고, **NAKS 초창기에 고급반 교과서를 한국어로, 영어로 집필해서 크게 공헌**한 분이다. 상급 학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영문을 병기한 한국어 III 을 집필하여 크게 기여하였으며, 약 10 년간 NAKS 총회, 연수회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였다. 또한, **태극기와 한글의 철학과 역사에 남다른 애착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부군이신 조가경 박사와 함께 버팔로 뉴욕주립대학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한 선구자이시기도 하다. 1986 년경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한 후 댁에 들려 점심을 같이했던 기억이 새롭다. 김석연 교수는 2014 년 6 월 15 일 작고하셨다.

김상명 – 가나안 출판사 김상명 사장! 나는 NAKS 회장, 부회장을 하는 동안 이분에게 너무나 큰 신세를 졌고 **오랫동안 NAKS 를 사랑하고 도와준 분이시기에** 여기 특별히 이분을 기억하고 싶다. 실비로, **외상으로 한국어 교과서를 출판**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팔다 남은 책들을 산더미처럼 좁은 창고에 쌓아놓고 팔릴 때까지 맡아줬던 은인이었다. 슬하에 자녀를 둔 까닭에 초창기의 모든 회장들을 다 측은히 생각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 그래서 NAKS 창립 30 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 적지 않을 수 없다.

김치경 – 김박사는 체리힐 뉴저지에 오래 살아오신 분으로 **NAKS 의 철학과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일생동안 정진해 온 분이시다.** 초창기에 많은 기조 강연을 하였고 열심히

일하셨으나 직장 관계로 2 대 부회장직만 맡아 수행하였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체리힐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드디어 김치경 박사를 찾아냈다. 엿그제 한 시간 이야기하면서 근황을 들었는데, 얼마 전 심장마비로 넘어졌지만 지금은 거의 완쾌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40 주년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춘(주미대사관 교육관) – 김영춘 교육관은 **NAKS 가 창립된 직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 준 은인**이었다. 칼날처럼 예리한 논리로 **NAKS 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나, 지역협의회가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본국 정부(문교부)와의 ‘물밑 작업’을 해준 공로자이다. 서울사대를 1949 년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는 경기 중,고교 교사, 서울시 교육청 인사과장, 문교부 수석장학관 등의 요직을 끝내고 강경구 초대 장학관(현재 워싱턴 거주)의 뒤를 이어 대사관 교육관으로 부임하였다. 오랜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워싱턴에 온 그는 우리 집사람의 고종사촌 오빠 장기택 씨 (현재 McLean, VA 거주)와 서울사대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우연한 친분을 통해 나는 김영춘 교육관과 여러 번 사석에서 만났고 ‘한 잔 약주’를 좋아하던 그분과 자주 즐겁게 만나 큰 도움을 청했다. 그는 언제나 내게 반말로 “해 줄게, 해 준다니까!” 하며 3 년 동안 큰 호텔에 수백 명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초창기의 전국 행사는 불가능하였다. 그는 한국에 가면 교육부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교과서 발간을 위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분이 몇 해 전에 타계하셨다는 이야기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많은 ‘노병’이 이미 타계하였다.

그러나, 그분들의 업적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임금진, 김송희 – 1987 년 8 월 29 일 연례총회와 교사 연수회 첫날 저녁, 볼티모어 바닷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내가 회장인 까닭에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수고한 임원들에게 와인을 대접하는 시간이었다. 임금진 교장이라는 분이 자기는 로체스터 뉴욕에서 왔다 하기에 “거기 내가 아는 김효근 박사라는 아주 괜찮은 과학자 한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했더니 눈을 크게 뜨며 “아이구 참, 내가 바로 그 ‘XXX 사람’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후 여러 차례 남편 김효근 박사와 한국에서, 미국에서 함께 만났다. 임금진 교장은 남편 김 박사가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으로 혼자 한국에 나가 계신 동안 로체스터 **한국학교 행사를 위해 저녁에 떡을 맞춰 싣고 가던 중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타계**하였다(2000 년경).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순교’라고 하는데 **NAKS 에서는 이런 희생을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기념하고 추모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분 이야기는 로체스터 한인사회에 아직도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다.

또, 같은 날 저녁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은 그때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김송희 시인이었다. “김송희 씨 남편은 언제 미국에 오셨나요?” 물었더니 1950 년 초라고 했다. 나는 놀라서 “아니 그때 누가 미국에를 옵니까? 하기가 1950 년 6.25 사변 전, 내가 서울중학교 2 학년 때 미국 간 아이가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요” 했더니 “그럼 혹시 그 학생 이름 기억하세요?” 한다. “네, 한 반에서 바로 옆에 앉았던 ‘X 삼열’ 이라는 애였는데 미국으로 떠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땐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던 때였는데...” 김송희 시인은 너무 놀라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랍니다!” 하는 것이었다. 후에 들은 바로는 그는 한국을 몹시 좋아해서 뉴욕의 직장을 그만두고 동덕여대에서 오래 강의를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옛 중학 동창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김송희 시인은 **NAKS 에서 많은 강의를 했고** 현재는 등단한 시인으로 크게 활약하고 계시다. 확률론을 전공한 통계학자인 나에게 이런 만남들은 확률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기상천외의 사건들이기에 NAKS 의 창립 뒤에 숨은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어 적었다.

다른 많은 동역자들 – 할애된 지면으로 여기 자세히 적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이름만이라도 여기 남겨야 도리일 것 같다. 서울공대 선배로 초대회장을 맡아 준 **주하성** 박사, 나와 함께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보’를 창간한 **김유미** 소설가, 동료 과학자로, 친구로 초창기에 기꺼이 도움을 준 **고의곤, 이영작, 류기창, 김기봉, 염영일** 여러 박사님들 - 이분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며 지금도 교포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초창기부터 계속 열심으로 헌신하고 계신 **이선근, 김근순** 내외분, 그리고 워싱턴 근교에서 NAKS 의 텃밭을 만들어 주신 **최호택, 김일호** 두 분, 그리고 1988 년부터 부회장으로, 회장으로 지역협의회를 만들어 전국으로 터를 넓혀 준 ‘광개토대왕’ **황보철** 회장, 또 처음부터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일호, 남영림, 김은자** 등 여러분들은 초창기 역사에 길이 남을 ‘1 등 공신’들이라 하겠다.

맺는 말 – ‘한국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제는 “제대로 살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10 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살까?”의 질문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질문이겠지만 나는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은 못 된다고 말한다. 한국이 ‘1 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1 등 정신’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1 등 정신은 무엇일까? 나는 창립 40 주년을 맞은 NAKS 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 **단순히 한국의 말과 글과 문화, 역사만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G1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묻고 싶다. 그것은 **GDP 를 크게 늘이는 작업보다 차원이 높은 또 하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겠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임할 것으로 믿는다!

*서문원 박사는 NAKS 창립위원(1980 – 1981), NAKS 3 대 회장(1987 – 1989), NAKS 6 대 이사장(1997 – 2000)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트라이앵글 한국학교(2010~)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달의 초점] 제 39 회 낙스 학술대회 100 번째, 200 번째,

300 번째 등록 교사 축하선물 증정



100 번째 등록 김영은 선생님

200 번째 등록 황인경 선생님

300 번째 등록 김동희 선생님

지난 5 월 15 일과 5 월 21 일 낙스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학술대회 홍보를 위한 작은 온라인 행사를 마련하였다.

오는 7 월에 열리는 '제 39 회 낙스 학술대회' 100 번째, 200 번째, 300 번째 등록 교사에게 각각 소정의 축하선물 \$50 전달식을 가졌다. 그 행운의 주인공으로 김영은 선생님(동북부협의회/ 뉴욕 한국학교), 황인경 선생님(북가주협의회/ 임마누엘 한국학교), 김동희 선생님(하와이협의회/ 아이에아 한인 문화학교) 등이 선정되었다. 김영은 선생님은 낙스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김선미 총회장과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이번 학술대회에 더 많은 낙스 회원교 소속 교사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술대회 등록 교사를 위한 기쁨의 축하 자리 마련



더 많은 낙스 소속 회원교 교사들이 참여하길 ...

<제 39 회 낙스(NAKS) 창립 40 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2021 년 7 월 15 일(목)~17 일(토)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학술대회 정규등록은 오는 5 월 31 일까지이며, 온라인 등록과 자세한 안내 사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a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6-3-1>



사진은 창립 40주년 기념 제 39회 나스 학술대회 포스터

이달의 명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워싱턴협의회 이사장 이 기 훈



속담은 그 속담이 생겨난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시대나 장소가 바뀌면 속담이 의미하는 원래의 뜻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영어에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사전에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이 속담이 탄생한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뜻이었다. 먼저 돌은 무겁기 때문에 한곳에 정착해야 하는데 구르는 돌(A rolling stone)은 정상이 아니고 한군데 머물지 못하는 떠돌이라는 조롱이 섞인 표현이다. gather 라는 단어는 돈이나 책 등 좋은 것을 모을 때 사용되는 동사이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곰팡이 종류이며 나무껍질이나 바위 같은 곳에 지저분하게 발생하는 'Lichen'과 양탄자처럼 부드럽고 일급수에서 자라는 'Moss'가 있다. 이 속담에서 나오는 이끼(Moss)는 귀한 존재이며 돈(Money)을 은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속담을 원뜻에 맞게 번역하자면 “구르는 돌은 이끼(Moss)를 모으지(Gather) 못한다”이며 이 속담의 교훈은 사업이나 학업, 문화 예술, 스포츠에서 성공하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군데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의 “한 우물을 파라”와 같은 의미이다.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민성을 이해하면 이런 속담이 등장한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인 동포사회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전통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빨리빨리’를 신조로 삼고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격언이 반영되어 봉사하기보다는 모두가 리더가 되려고 했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40 년 동안 무거운 돌처럼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본인의 영예보다는 그들에서 2 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포단체가 되었다. 앞으로도 소의 걸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머지않아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 단체와 나란히 할 수 있는 훌륭한 단체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40 년 무거운 돌처럼 한 가지 뜻을 가지고,
2 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
앞으로도 소의 걸음으로 꾸준히 정진...**

알림 사항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한인 이민사>

한인 이민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어메리칸으로서의 자긍심을 깨닫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사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우리 선조들의 헌신적 삶이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역사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인 이민사'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 수업자료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4-2019-02-09-05-19-43>

